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농촌과 도시, 보존과 개발의 경계에서 건축하기

Constructing on the border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arm area and the urban area

30년 전, 중국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그들은 집단적인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를 공유하였고 획일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 중국의 경제개혁으로 이농현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에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농촌 인구의 여가시간, 소득, 가족구조 등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도시-농촌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던 정책 중 하나가 중국의 주민등록제도인 户口(Hukou) 제도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농촌 또는 도시 거주자로 등록되는 정책이다. 도시민 인지 농민인지에 따라 토지개발의 권리를 비롯해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다르게 적용되었다. 도시민의 개발은 정부의 공식적인 개발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되는 데 반하여 농민의 농촌 지역 개발에 대한 권리는 정부의 시책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이는 훨씬 더 많은 부동산 거래를 낳아 투기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비교적 명확했던 도시-농촌의 거주공간 등 주변 환경은 점차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기형적 공간구조를 낳았다.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물고기 공장이나 골프 코스 옆에 있는 버려진 농장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타워블록 옆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무질서한 작은 집들, 농경지에 버려진 쓸 만한 주택들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부재 및 건축규정이나 시스템의 허점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개발과정에서 흔히 반복되는 오류이기도 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건축사들은 중국의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건축적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팀으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Rural Urban Framework(RUF)이다. 주로 중국의 농촌과 도시의 개성 있는 개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원형을 보존 하면서 개발을 이루어내는 일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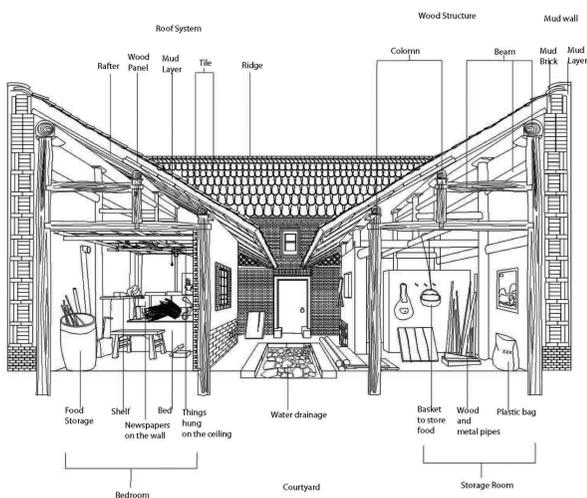
RUF는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개발로 인해 개성을 잃고 애매모호하게 생성된 마을의 형태를 다섯 유형, 즉 도시마을, 공장마을, 도시교외마을, 경쟁소외마을, 농촌마을로 분류하고 건축적 솔루션으로 '건축적 유형(Architectural prototype)'을 제안한다. 아마도 프로토타입을 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빠르게 개발되는 중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형태의 보존과 현대적 개발의 균형을 찾고, 동시에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시지아 마을(Shijia Village)'이 있다. 중국 시안(Xi'an)의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Shijia Village는 여느 농촌처럼 황폐화되고 있는 서안 근처의 작은 마을이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홍콩 대학생들이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의도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RUF의 John Lin(왼쪽)과 Joshua Bolchover(오른쪽), Photo courtesy RUF

중국의 숨 가쁜 도시화 진행으로 인하여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촌은 생활 자체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촌은 외부에서 노동력과 재료, 물품 등을 차용해야 할 만큼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농촌의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단 농촌생활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안뜰 또는 마당을 꼽고, 이를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의 공간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평면적 10m×30m를 디자인하였다.



사계절을 위한 집 단면도(House for all seasons_section_RUF)

이 집의 주된 의도가 '자기 독립성'인 만큼 여러 친환경적인 건축 방안들이 고려되었다. 지붕은 자체가 곡물을 말릴 수 있는 건조대이면서 가족 구성원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우기에는 비를 모았다가 길고 건조한 여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뜰 중 하나는 돼지를 사육하는 공간이 되면서 가축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여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돌의 방식처럼 부엌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기가 침실을 데우고 굴뚝으로 빠진다.

이 집을 짓는 구조적 방식과 건물의 외피(cladding)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기술을 이 지역에 맞도록 세심하게 결합한 것이 돋보인다. 즉 콘크리트로 내진에 견딜 수 있을 만한 구조 뼈대를 만들고 내벽과 외벽은 필요에 따라서 전통적인 벽돌을 적절하게 돌려써야 채웠다.

이 프로젝트 자체의 디테일한 디자인도 흥미롭지만 더 주시할만한 점은 중국의 건축사를 비롯한 개발 설계자들이 농촌의 무분별한 도시화와 도시의 몰개성적인 개발이 만연하는 사회적 현상에 맞서 어떻게 보존과 개발의 경계를 설정하고 건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획일적인 도시화(개발)로 인해 농촌의 전통형식을 잃어버린 한국의 농촌과 소도읍¹⁾의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볼 때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벽돌로 쌓은 사계절을 위한 집(House for all seasons_RUF)

1) 농촌도 도시도 아닌 지역으로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중간 형태의 취락